

## 'PSG 이적 후 첫 우승' 이강인...슈퍼컵 MOM 선정

등록 2024.01.04 08:12:23



[서울=뉴시스]이강인, 프랑스 슈퍼컵 MOM. (사=프랑스 리그1 인스타그램 캡처) 2024.01.04. photo@newsis.com \*재판 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시스]안경남 기자 = 프랑스 프로축구 강호 파리생제르맹(PSG) 입단 후 첫 우승 트로피에 입 맞춘 축구 국가대표 미드 필더 이강인이 프랑스 슈퍼컵 '최우수선수(Man of the match)'에 선정됐다.

PSG는 4일(한국시간)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툴루즈와의 2023 트로페 데 샹피온(프랑스 슈퍼컵)에서 2-0으로 승리했다.

경기 시작 3분 만에 터진 이강인의 선제 결승골과 전반 44분 킬리안 음바페의 추가골로 우승했다.

이 대회 역대 최다 우승팀인 PSG는 우승 기록을 12회로 늘렸다.

지난해 7월 마요르카(스페인)를 떠나 PSG로 온 이강인은 입단 후 첫 우승을 달성했다.

이강인은 A매치 소집 규정에 따라 지난 2일 소속팀을 떠나 아랍에미리트(UAE) 아부다비에 전지훈련 캠프를 차린 축구대표팀에 합류해야 했지만,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허락을 받고 이 경기에 선발 출전해 경기가 끝날 때까지 뛰었다.

이강인은 전반 3분 우스만 데멜레의 컷백 패스를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했다.



[파리=AP/뉴스시스]이강인, 프랑스 슈퍼컵 우승. 2024.01.03.

올 시즌 3호골(정규리그 1골·유럽축구연맹(UEFA) 챔피언스리그 1골·슈퍼컵 1골)이자 2024년 PSG의 1호골이다.

경기 후 프랑스 리그1 사무국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강인을 MOM으로 뽑았다고 밝혔다.

유럽통계사이트 소파스코어도 경기 후 이강인에게 평점 8점을 부여했다. 아슈라프 하킴이(8.6점)에 이어 팀 내 두 번째로 높은 점수다.

한편 이강인은 소속팀을 떠나 현지시간으로 5일 UAE 오전 클린스만호에 합류해 아시안컵 준비에 돌입한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knan90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